

# 남녀 아동의 우울 수준에 따른 어머니 양육 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

The Difference i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Parents' Conflict,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according to Boys' and Girls' Depression Level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한 준 아  
한양 사이버대학교  
전임강사 김 지 현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Research Fellow* : Jun Ah Ha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and Education, Hanyang Cyber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Ji Hyun Kim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parents' conflict,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according to boys' and girls' depression level.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50 children of 4 to 6 grades and their teachers from one elementary school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The result were as follows: Firstly, depressive boys perceived less maternal warmth and more parents' conflict than non-depression group. And boys of depression group had less task orientation than non-depression group. Secondly, depressive girls perceived less maternal warmth, supervision, and parents' support, and more parents' conflict than non-depression group. And girls of depression group were rated having less peer social skills, frustration tolerance than non-depression group by teachers.

**주제어(Key Words)** : 우울(depression), 어머니 양육 행동(maternal parenting behaviors), 부부갈등(parents' conflict),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s),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

**Corresponding Author** : Jun Ah Han,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134 S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3544 Fax: +82-2-363-3544 E-mail: junahan@naver.com

## I. 서론

현대 사회의 아동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최근 낮은 출산율로 인해 한 자녀를 둔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동에 대한 기대치와 요구가 높아졌으며, 입시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로 인해 아동은 어린 연령부터 높은 수준의 성취를 위해 과중한 학습을 요구받고 있다. 스트레스는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로울 수 있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압력은 정신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최영희, 박영애, 박인진, 신민섭, 2002). 특히 우울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정서 경험으로(임양화, 오경자, 1989), 아동의 경우 우울이 생활 스트레스와 특히 관련된다는 보고가 있다(배주미, 2000; Nolen-Hoeksema, Girgus, & Seligman, 1992). 아동기는 왜곡된 지각이나 귀인을 동반하는 우울이 나타나는 시기로, 유아기와 달리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우울이 지속될 경우, 학교 생활이나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발달상의 과업 성취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무단 결석, 가출, 비행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임양화, 오경자, 1989; Avenevoli & Merikangas, 2006; Horowitz & Garber, 2006). 그리고 아동기의 우울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형성 과정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우울 장애를 예측한다는 결과가 있다(Newman, et al., 1996).

아동기의 우울의 원인으로 크게 유전, 신경계 기능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원인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하며, 심리사회적 요인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과 더불어 이러한 심리사회적 요인이 아동기 장애를 예측하거나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소연, 황준원, 김봉년, 조수철, 신민섭, 2008).

특히,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행동과 심리적인 적응 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Maccoby & Martin, 1983). 선행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가 돌봄이 부족하고 과잉 보호적인 양육 행동을 하는 것은 아동의 우울과 관련이 있었으며, 우울한 아동은 우울하지 않은 아동보다 자신의 부모를 거부적, 역제적으로 보고하였다(Asarnow, Calson, & Guthrie, 1987). 또한 우울한 아동의 부모는 우울하지 않은 아동의 부모보다 거부적이며, 분노에 찬 태도를 보이며, 대화의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urbach & Borduin, 1986). 선행 연구에서 온정적·수용적 양육 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의 아동이 부정적 양육 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의 아동에 비해 우울 발생의 위험율이 더 낮았으며, 거부적·제재적 양육 행동은 아동의 우울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을 하여서 아동에게 부

정적 인지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lloy, et al., 2001; Avenevoli & Merikangas, 2006). 또한 오승환과 변귀연(2008)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폭력, 학대가 아동의 우울 증상을 예측하였으며, 7-17세의 우울한 아동에 대한 1년간의 종단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신뢰로운 관계는 우울의 회복을 예측하였다(Garber, 2005). 즉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아동의 우울감에 대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부정적인 어머니 양육 행동이 아동의 우울감에 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또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부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권영옥, 이정덕, 1999; 김정란, 2004; Cummings, Davies, & Simpson, 1994; Davies & Cummings, 1994). 선행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권영옥, 이정덕, 1999; 김정란, 2004; 이민식, 오경자, 2000; Buehler & Gerard, 2002), 부부갈등의 빈도가 많을수록 자녀는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더욱 심하게 겪게 되며(권영옥, 이정덕, 1999; Cummings & Cummings, 1988), 부모가 심하게 싸울수록 자녀는 행동 문제를 많이 보였다(권영옥, 이정덕, 1999). 또한 아동은 부모의 부부갈등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더욱 위협적이라고 지각하며, 불안이나 우울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rych & Fincham, 1993). 선행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자기 보고를 통해 측정된 부부갈등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정도가 자녀의 내재화 문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식, 오경자, 2000). 국내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행동문제(권영옥, 이정덕, 1999), 아동의 우울과 부모간 갈등, 양육행동의 영향(민하영, 김경화, 2007)을 살펴본 연구 등이 있으나, 아동의 우울 수준에 따라서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한편,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안되는 또 다른 변인은 사회적 지원이다(Spence & Reinecke, 2003). 사회적 지원은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Wills, 1983). 선행 연구에 의하면, 주변의 타인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원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양동규, 1998; 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 Windle, 1992). 아동은 부모와 가족을 비롯하여 또래와 교사 등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원을 지각하게 되는데, 가족이 자신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낮다고 받아들이는 아동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선남, 최외선, 1999). 한편 유안진과 한미현(1996)은 친구의 지원이 아동의 내면화 행동 문제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지원과 우울의 관련성을 검토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애정적이

고 안정적 분위기를 제공하는 부모, 친구, 교사의 지원은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며(양돈규, 1998), 가족 지원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이 높게 나타나며(Windle, 1992), 교사 지원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Dubois et al., 1992). 이와 같이 아동의 우울을 완충하기 위한 보호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원 즉, 부모, 교사, 친구의 지원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과 우울의 관련성을 검토한 선행 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이영미, 민하영, 2004).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우울 위험이 있는 아동과 우울하지 않은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에 차이를 살펴보고자 아동의 우울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유능성은 구체화된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한 사회적 목표를 획득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을 의미한다. 이는 일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자신과 타인에게 서로 유익한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학교와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아동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유능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행 연구에서는 우울한 아동이 타인과 원만한 상호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Puig-Antich, et al., 1985). Goodyer와 Altham(1991)의 연구 역시 아동의 우울은 친구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유능감과 우울과의 관련성 연구는 많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동이 학교에서 만나는 성인인 교사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평가하여, 우울 위험 집단과 우울하지 않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학교 안에서 우울한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기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한 아동과 우울하지 않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아동기 우울에 대한 보호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기에 나타나는 우울은 이후 아동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이르렀을 때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동기 우울의 예방에 대한 관심은 매우 필요하다(Horowitz & Garber, 2006). 그러나 아동기 문제 행동을 다룬 연구에서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으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아동기 우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배주미, 2000).

또한 아동기 우울에 대한 성차 연구를 살펴보면,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아동기에는 우울증이 걸리는 비율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Wicks-Nelson & Israel, 2001)와 여아의 우울 증상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며(장은진, 서민정, 정철호, 2001), 남아에게 더 흔하다는 보고(조수철, 1993)도 나타나는 등 일관된 경향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의 우울 성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여자의 우울 성향이 일관되게 남자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는데(이희연, 하은혜, 2008), 13세 이후 여자 청소년 우울증 비율은 남성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학령기 후기 아동의 성별을 구분하여 우울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남녀 아동의 우울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의 역할을 규명하여, 이후 우울에 대한 예방적 개입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상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남아의 우울 수준에 따라 어머니 양육 행동,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가?
2. 여아의 우울 수준에 따라 어머니 양육 행동,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1개 초등학교의 4학년 16명(남아 7명, 여아 9), 5학년 98명(남아 39명, 여아 59명), 6학년 36명(남아 15명, 여아 21명)으로 총 150명과 해당 학급의 교사였다. 연구 대상 아동의 성별은 남아 61명(40.6%), 여아 89명(59.4%)으로 여아가 더 많았다. 이 시기의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학령 후기에 인지적 요소가 동반된 우울의 패턴이 안정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Wicks-Nelson & Israel, 2001).

본 연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다. 먼저 서울시에서 중류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1곳을 임의 표집한 후 4~6학년 아동 280명을 대상으로 우울에 대한 자기보고를 실시하였다. 이 중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질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이 가능

한 229명 아동의 우울 평균 점수는 13.4점(표준편차 7.2)으로 나타났다. Kovacs와 Beck(1977)의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다고 제안한 기준은 13점 이상이었으나, 우리나라 아동의 우울증 진단을 위해 외국 연구에서 산출된 분할점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로 정상인데 우울증으로 분류될 긍정적 오류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조수철, 신민섭, 2006), 아동용 우울 척도의 cut off point를 10점, 16점을 기준으로 하여 10점 이하는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16점 이상은 우울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 중 우울 위험 아동 28명, 우울하지 않은 아동 33명, 여아 중 우울 위험 아동 44명, 우울하지 않은 아동 45명으로 총 150명이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표 1> 성별 및 집단에 따른 연구 대상 아동 수

	남	여	전체
우울 위험 집단	28	44	72
우울하지 않은 집단	33	45	78
전체	61	89	150

## 2. 측정 도구

### 1) 우울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Kovacs와 Beck(1977)가 7~17세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하여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척도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은 우울의 주요 증상을 나타내는 우울 정서, 행동 장애, 흥미 상실, 자기 비하, 생리적 증상 등에 대한 문항에 대해 증상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0~2점으로 응답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0~5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총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는 .88이었다.

### 2) 어머니 양육 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한준아(2008)가 개발한 ‘부모 양육 행동’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온정’(9문항)과 ‘관리·감독’(6문항)의 2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온정’은 부모가 아동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기, 아동에 대한 수용, 필요한 도움 제공하기, 자율성에 대한 격려 등과 같은 애정적이고 따뜻한 행동을 의미하며, ‘관리·감독’은 부모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일관성 있게 제한을 정해 주고 아동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나가는 양육 행동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하여 아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며, 가능한 점수

의 범위는 ‘온정’이 9점~36점, ‘관리·감독’이 6점~2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정과 관리·감독이 많다고 아동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는 ‘온정’이 .85, ‘관리·감독’이 .72이었다.

### 3)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Grych, Seid와 Fincham(1992)의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CPIC)을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권영옥과 이정덕(1997)의 연구에서 추출된 8개 하위차원 중 ‘부부갈등 빈도’(6문항), ‘부부갈등 강도’(7문항), ‘부부갈등 해결’(6문항)의 3개 하위차원, 총 19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차원의 갈등 특성 요인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특히 유해한 측면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Cummings & Cummings, 1988; Grych et al., 1992). 각 문항에 대하여 아동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의 3점 척도로 평정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부부갈등 빈도’가 6점~18점, ‘부부갈등 강도’가 7점~21점이며, ‘부부갈등 해결’은 6점~1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갈등이 빈번하고 심각한 형태를 띠며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는 ‘부부갈등 빈도’가 .78, ‘부부갈등 강도’가 .81, ‘부부갈등 해결’이 .81이었다.

### 4) 사회적 지원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1985)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지원’(8문항), ‘교사지원’(8문항), ‘친구지원’(8문항)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나 평가를 측정하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는 부모지원이 .75, 교사지원이 .84, 친구지원이 .82이었다.

### 5)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Teacher-Child Rating Scale(T-CRS: Hightower, et al., 1986)을 정현희(2002)가 한국의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번안한 ‘한국판 교사용-아동 평정척도’ 중 사회적 유능성에 해당하는 20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교에서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는 20문항은 ‘좌절 인내’(5문항), ‘자기 주장적 기술’(5문항), ‘과제 지향’(5문항), ‘포래관계 기술’(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는 아동이 각 문항에 나타난 특성에 부합하는 정도를 ‘거의 그

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는 좌절 인내가 .79, 자기 주장적 기술이 .86, 과제 지향이 .85, 또래관계 기술이 .87로 나타났다.

### 3. 연구 절차

본 조사는 서울시에 위치한 1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아동 150명과 8명의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연구자가 각 학급을 방문하여 실시하였고 질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5분이었다. 교사용 질문지는 아동용 질문지를 실시한 후 아동의 담임 교사에게 전달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자는 학급의 담임 교사에게 평정 척도 실시상의 유의점을 주지시킨 후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교사가 평가하는 사회적 유능성 질문지 자료는 아동용 질문지를 실시한 1주일 후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총 28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된 것은 245부였고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질문지를 제외하여 분석 가능한 것이 229부였다. 이 중 아동용 우울 척도의 cut off point를 10점, 16점을 기준으로 하여 우울 점수가 10점 이하와 16점 이상에 속하는 아동 150명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 변인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의 성에 따라 측정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남녀 아동 별로 우울 수준에 따라 어머니 양육 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의 각 하위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 행동의 평균 점수를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온정'이 25.7점, '관리·감독'이 14.9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를 문항 평균 점수로 나타내면 '온정'이 2.8점, '관리·감독'이 2.4점으로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중 2점인 '때때로 그렇다'와 3점인 '자주 그렇다'에 해당하

는 것으로 어머니가 중간수준의 관리·감독과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온정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 양육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온정적 양육 행동, 관리·감독 양육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부갈등의 하위 영역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갈등 빈도'가 9.4점, '부부갈등 강도'가 10.8점, '부부갈등 해결'이 9.7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문항 평균으로 나타내면 '부부갈등 빈도'가 1.6점, '부부갈등 강도' 1.8점, '부부갈등 해결'이 1.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3점 척도 중 1점인 '아니다'와 2점인 '그렇다'에 해당하며,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갈등이 중간 이상의 빈도와 강도를 띠며, 부부갈등의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부부갈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지원의 하위 영역 평균 점수는 '부모지원'이 20.6점, '교사지원'이 21.7점, '친구지원'이 20.5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를 문항 평균으로 나타내면 '부모지원'이 2.6점, '교사지원'이 2.7점, 그리고 '친구지원'이 2.6점으로 이는 4점 척도 중 2점인 '아니다'와 3점 '그렇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동은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지원, 교사지원, 친구지원의 차이는 없었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래관계 기술'은 13.8점, '자기주장성 기술'은 12.9점, '좌절 인내'는 14.2점, '과제 지향'은 13.9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문항 평균 점수로 나타내면 '또래관계 기술'은 2.8점, '자기주장성 기술'은 2.6점, '좌절 인내'는 2.8점, '과제 지향'은 2.8점으로 4점 척도 중 2점 '그렇지 않다'와 3점인 '그런 편이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대상 아동이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능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성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또래관계 기술'( $t = -3.12, p < .01$ ), '좌절 인내'( $t = -2.85, p < .01$ ), '과제 지향'( $t = -4.28, p < .001$ )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성에 따라 '자기 주장성 기술'에 대한 사회적 유능성은 차이가 없었다. 즉 여아는 남아보다 또래와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극복하며 잘 참아내며, 지루하거나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한다고 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의 평균 점수는 13.6점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성에 따른 우울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아동의 우울 수준에 따라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교사가 평가한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별로 우울 점수를 기준으

〈표 2〉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150)

측정변인		남	여	전체	t
		(n = 61) M(SD)	(n = 89) M(SD)	(N = 150) M(SD)	
어머니 양육 행동	온정	24.8(6.6)	26.3(6.7)	25.7(6.7)	-1.31
	관리·감독	14.7(4.4)	15.2(4.2)	14.9(4.3)	-.66
부부갈등	빈도	9.1(2.5)	9.6(2.8)	9.4(2.7)	-1.08
	강도	10.8(3.3)	10.9(3.4)	10.8(3.4)	-.23
	해결	9.6(2.0)	9.8(2.2)	9.7(2.2)	-.33
사회적 지원	부모지원	21.0(2.4)	20.26(4.0)	20.6(2.3)	1.85
	교사지원	21.8(1.8)	21.7(1.8)	21.7(1.8)	.19
	친구지원	20.7(2.3)	20.3(1.9)	20.5(2.1)	1.27
사회적 유능성	포래 관계 기술	13.1(2.7)	14.3(2.0)	13.8(2.4)	-3.12**
	자기주장성 기술	12.9(3.4)	12.9(2.7)	12.9(3.0)	-.02
	좌절 인내	13.7(1.8)	14.5(1.5)	14.2(1.6)	-2.85**
	과제 지향	12.6(3.3)	14.8(2.9)	13.9(3.2)	-4.28***
우울		12.9(8.1)	14.1(8.4)	13.6(6.3)	-.88

\* $p < .05$ , \*\* $p < .01$ , \*\*\* $p < .001$

〈표 3〉 남녀 아동별 우울 경향 상, 하집단의 우울 점수

측정변인	남 (n = 61)		여 (n = 89)	
	우울 위험 집단 (n = 28)	우울하지 않은 집단 (n = 33)	우울 위험 집단 (n = 44)	우울하지 않은 집단 (n = 45)
	M(SD)	M(SD)	M(SD)	M(SD)
우울	20.4(5.2)	6.6(3.1)	21.6(5.2)	6.8(2.1)

로 CDI 16점 이상과 CDI 10점 이하의 집단을 선정하여 우울 위험 집단과 우울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남녀별 우울 경향 집단의 우울 점수는 〈표 3〉과 같다. 남아 우울 위험 집단의 평균은 20.4점, 여아 우울 위험 집단의 평균은 21.6점으로 나타났으며, 우울하지 않은 남아 집단의 평균은 6.6점, 우울하지 않은 여아 집단의 평균은 6.8점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우울 수준에 따른 어머니 양육 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우울 수준에 따른 어머니 양육 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별로 우울 위험 집단, 우울하지 않은 집단을 나누어 차이를 살펴보았다.

1) 남아의 우울 수준에 따른 어머니 양육 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

남아가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 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교사가 평가한 사회적 유능성이 남아의 우울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온

정’ 하위영역의 경우 우울한 남아가 우울하지 않은 남아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t = -3.67, p < .01$ ), ‘관리·감독’ 하위 영역에서는 우울한 남아와 우울하지 않은 남아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우울한 남아는 우울하지 않은 남아보다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적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가 지각한 부부간의 갈등의 경우, ‘부부갈등 빈도’( $t = 2.60, p < .05$ ), ‘부부갈등 강도’( $t = 3.12, p < .01$ ), ‘부부갈등 해결’( $t = 2.71, p < .01$ )에서 우울한 남아 집단이 우울하지 않은 남아보다 더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우울한 남아는 우울하지 않은 남아보다 부모의 부부갈등의 빈도가 높고, 강도가 높고, 갈등 해결이 잘 안된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원의 경우 하위영역 ‘부모지원’과 ‘교사지원’ ‘친구지원’ 모두에서 우울 위험 집단과 우울하지 않은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경우 ‘과제 지향’에서 우울 집단보다 우울하지 않은 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 = -4.02, p < .001$ ). 이는 교사가 우울한 남아보다 우울하지 않은 남아가 더욱 과제 지향적인 유능성을 보인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포래관계 기술’, ‘자기주장성 기술’, ‘좌절 인내’의 유능성에서는 우울한 남아와 우울하지 않은 남아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여아의 우울 수준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

여아가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교사가 평가한 사회적 유능성이 여아의 우울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표 4〉 남아 우울 수준에 따른 어머니 양육 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

(N = 61)

측정변인		우울 위험 집단 (n = 28) M(SD)	우울하지 않은 집단 (n = 33) M(SD)	t
어머니 양육 행동	온정	21.7(5.0)	27.4(6.7)	-3.67**
	관리·감독	14.0(4.1)	15.3(4.7)	-1.07
부부갈등	빈도	10.1(2.7)	8.4(2.1)	2.60*
	강도	12.2(3.4)	9.7(2.8)	3.12**
	해결	10.4(2.3)	9.0(1.6)	2.71**
사회적 지원	부모지원	20.8(2.9)	21.1(1.8)	-.39
	교사지원	21.8(1.6)	21.7(2.0)	.06
	친구지원	20.4(2.8)	21.1(1.6)	-1.25
사회적 유능성	또래 관계 기술	12.9(2.9)	13.4(2.7)	-.74
	자기주장성 기술	12.3(2.9)	13.5(3.7)	-1.42
	좌절 인내	13.4(1.8)	14.0(1.7)	-1.26
	과제 지향	11.0(2.9)	14.0(3.0)	-4.02***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 여아 우울 수준에 따른 어머니 양육 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

(N = 89)

측정변인		우울 위험 집단 (n = 44) M(SD)	우울하지 않은 집단 (n = 45) M(SD)	t
어머니 양육 행동	온정	23.6(6.5)	29.0(5.7)	-4.14***
	관리·감독	13.9(3.8)	16.4(4.2)	-2.94**
부부갈등	빈도	10.7(3.1)	8.5(2.0)	3.86***
	강도	12.0(3.7)	9.9(3.1)	2.85**
	해결	10.4(2.2)	9.2(2.1)	2.57*
사회적 지원	부모지원	19.5(2.2)	21.0(2.1)	-3.06**
	교사지원	21.7(2.0)	21.6(1.7)	.22
	친구지원	20.3(1.9)	20.4(2.1)	-.42
사회적 유능성	또래 관계 기술	13.7(2.0)	14.9(1.8)	-3.11**
	자기주장성 기술	13.0(2.6)	12.9(2.9)	.27
	좌절 인내	14.1(1.6)	14.9(1.3)	-2.56*
	과제 지향	14.5(2.8)	15.1(3.0)	-.88

\* $p < .05$ , \*\* $p < .01$ , \*\*\* $p < .001$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온정’ ( $t = -4.14, p < .001$ ), ‘관리·감독’ ( $t = -2.94, p < .01$ ) 하위영역 모두 우울하지 않은 여아가 우울한 여아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울하지 않은 여아가 우울한 여아보다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 행동과 관리·감독 양육 행동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간의 갈등의 경우, ‘부부갈등 빈도’ ( $t = 3.86, p < .001$ ), ‘부부갈등 강도’ ( $t = 2.85, p < .01$ ), ‘부부갈등 해결’ ( $t = 2.57, p < .05$ )에서 우울한 여아 집단이 우울하지 않은 여아 집단보다 더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우울한 여아는 우울하지 않은 여아보다 부모의 부부 갈등의 빈도가 더 빈번하고, 부부 갈등이 심각하며, 갈등 해결이 잘 안된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의 경우 우울한 여아가 우울하지 않은 여아보다 부모지원( $t = -3.96, p < .01$ )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 경향이 높은 여아가 그렇지 않은 여아보다 부모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교사지원’, ‘친구지원’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경우 ‘또래관계 기술’ ( $t = -3.11, p < .01$ ), ‘좌절 인내’ ( $t = -2.56, p < .05$ ) 하위 영역에서 우울한 여아 집단보다 우울하지 않은 여아 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울하지 않은 여아가 우울한 여아보다 또래와 관계를 맺는 사회적 기술, 좌절된 상황에서 인내하는 능력이 더 유능함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주장성 기술’, ‘과제 지향’의 하위영역에서는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녀 아동의 우울 수준에 따라 어머니 양육 행동,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 문제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의 우울 수준에 따라 어머니 양육 행동, 부모의 부부갈등, 사회적 유능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남아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우울한 남아가 우울하지 않은 남아보다 온정적 양육 행동을 적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한 아동은 우울하지 않은 아동보다 자신의 부모를 온정적·수용적이지 않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Alloy, et al., 2001; Asarnow et al., 1987; Burbach & Borduin, 1986). 즉 어머니 양육 행동 중 온정적인 양육 행동은 남아의 우울감에 대한 보호 및 예방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에게 어머니의 일상적인 피드백인 양육 행동은 자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은 부모가 자신을 보는 방식대로 자신을 지각하게 되며, 어머니의 온정적·수용적이지 않은 양육은 아동에게 부정적 자기상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Garber, 2005; Gibb, 2002).

선행 연구에 의하면, 우울한 아동은 자신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지적 왜곡 경향이 있고, 자아상이 부정적 이어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여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대해 온정적이지 않다고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김소연 외, 2008).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상과 더불어 주변 세상에 대해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 과정에 대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울한 남아가 우울하지 않은 남아보다 부모의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에 있어서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간 갈등과 아동의 우울 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정란, 2004; 이민식, 오경자, 2000; Buehler & Gerard, 2002; Davies & Cummings, 1994). 즉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부부갈등의 강도가 심하고, 부부간의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아동이 경험하는 것은 아동에게 불안, 위협, 긴장 등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울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모의 긴장은 아동을 양육할 때 거부적이며, 무관심하거나 비일관적인 양육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민하영, 김경화, 2007; Buehler & Gerard, 2002). 즉 부모의 부부갈등은 단순히 부부갈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민하영, 김경화, 2007; Buehler & Gerard, 2002).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 행동, 아동의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양육 행동이 어떠한 경로로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우울한 남아는 우울하지 않은 남아보다 학교에서의 과제 지향 유능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에서 우울한 남아가 주어진 과제의 수행 및 완수를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울한 아동일수록 학교에서 학업과 관련된 유능성을 낮게 지각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최영희 외, 2002)와 일관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아동이 우울할수록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거나, 학업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엿보인다. 아동의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학업 수행에 저하되며, 현재 학교 적응 뿐만 아니라 이후 상급 학교로 진학 후에도 적응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으므로 가정 뿐만 아니라 교사의 관심이 필요하며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여아는 우울 수준에 따라 어머니 양육 행동,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울한 여아는 우울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과 관리·감독 양육 행동을 적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온정적·수용적 양육 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의 아동이 부정적 양육 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의 아동에 비해 우울 발생의 위험율이 더 낮았다고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Alloy, et al., 2001; Avenevoli & Merikangas, 2006), 본 연구에서 남아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 양육 행동 중 온정적인 양육 행동은 남아, 여아 모두의 우울감에 대한 보호 및 예방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령기 아동이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벗어나 좀더 많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나,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수용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여전히 심리적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우울한 여아는 우울하지 않은 여아에 비해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 행동을 적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아동에게 관심을 보이며 취침 시간, TV 시청시간, 숙제를 점검하는 등 적절한 감독을 할 때 적응을 잘 하였다는 선행 연구(Guidubaldi, Perry, & Nastasi, 1987)와 부모의 낮은 감독 양육 행동은 아동의 자아 통제 수준을 떨어뜨려 아동의 우울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백혜정과 황혜정(2006)의 연구와 일관적인 결과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여는 아동의 초기 청소년 시기의 비행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아동의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Rodgers &



Rose, 2002), 학령기 여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우에도 여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관리·감독 행동이 필요하다. 즉 어머니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일관성 있는 제한을 정해 주며 아동이 그 제한을 예측할 수 있는 양육 행동을 하는 것은 여아의 우울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비록 학령기 여아는 영유아기 아동에 비해 자기 보호 능력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수용과 관심, 일관적인 관리·감독 양육 행동은 학령기 아동에게 여전히 필요하며,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되며 아동기 우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우울한 여아는 우울하지 않은 여아보다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남아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부부갈등이 자녀의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 앞에서 부부갈등을 표출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부부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부부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부모 교육을 통해 부부간의 긴장과 갈등이 아동에게 전이되고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가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는 긍정적 부부 관계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의 강화, 아동의 우울 예방 및 적응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한편, 우울한 여아는 우울하지 않은 여아보다 부모 지원을 적게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한 여아는 우울하지 않은 여아보다 부모가 자신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낮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서적 지지가 낮은 아동에게서 우울이 높다는 연구와 일관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Windle, 1992).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과 우울의 관련성을 검토한 선행 연구(양돈규, 1998; Windle, 1992)에서 부모의 지원이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 것과 일관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여아의 경우 부모의 지원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 준다.

또한 우울한 여아는 우울하지 않은 여아보다 또래관계 기술, 좌절 인내에 관련된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우울한 여아는 우울하지 않은 여아보다 학교에서 또래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고, 좌절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수용하며 참아내는 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우울한 여아가 사회적 관계 및 대처 능력에서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선행 연구에서 우울한 아동은 사회적 기능에 결함이 있으며, 남들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Kaslow, Brown, & Mee, 1994), 사회적 위축, 사회적 능력의 부족함이 우울과 관련이 나타난 결과(Bell-Dolan, Reaven, & Peterson, 1993)와 일관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한 여아가 우울하지 않은 여아보다 좌절된 상황에 대한 인내를 더 어려워하는 것은 부정적 사건에 대해 자신이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사고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우울한 아동일수록 부정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사건의 원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Gladstone & Kaslow, 1995), 좌절을 감내하지 못한다고 여겨진다. 우울 수준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영역에서 여아와 남아가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우울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울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연구가 누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중류층이 거주하는 1개 초등학교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대상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우울 성향 정도를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로부터 아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더 신뢰로운 연구가 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교사가 평정하였는데,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에 대한 교사와 또래의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권연희, 2003),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와 또래 평정의 방법을 병행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다른 변인 외에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 환경에 대한 변인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 아동의 자아개념,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과 부모를 통해 대상 아동 부모의 결혼 상태, 결혼 만족도, 어머니의 우울 정도 등을 변인에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울과 관련 있는 변인들이 우울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변인들이 우울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에 따라 차이가 있게 나타난 변인들이 어떠한 인과관계 혹은 경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녀 아동 별로 우울 수준에 따라 관련 있는 변인이 차이가 난 점을 고려하여 남녀 아동 별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한 아

동의 예방과 치료적 개입에 있어 생물학적이거나 유전적인 요인 외에 가정에서의 어머니 양육 행동을 포함한 부모 자녀 관계,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사회적 유능성 등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함의를 지닌다. 또한 남녀 아동 별로 우울 수준에 따라 관련이 있는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추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우울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 ■ 참고문헌

- 권연희(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영옥, 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권영옥, 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3.
- 김소연, 황준원, 김봉년, 조수철, 신민섭(2008).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우울장애 아동 집단의 부모 양육태도.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9(3), 175-181.
- 김정란(200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학대 및 자녀의 우울.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83-690.
- 민하영, 김경화(2007).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 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양육 행동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33-41.
- 배주미(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18개월 추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혜정, 황혜정(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양돈규(1998).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승환, 변귀연(2008). 해체가족의 기능적 특성이 청소년의 우울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14, 83-106.
- 유안진,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이민식, 오경자(2000). 부부 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 이영미, 민하영(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 성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1-10.
- 이희연, 하은혜(2008). 청소년기 우울증상의 성차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547-561.
- 임양화, 오경자(1989). 우울한 아동의 귀인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8(1), 69-76.
- 장은진, 서민정, 정철호(2001). 아동 우울에 관련된 요인 및 부모 우울과의 관계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2(2), 245-255.
- 정현희(2002). 한국판 교사용 아동평정척도(T-CRS)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2), 73-88.
- 조수철(1993). 소아·청소년 우울 장애. **대한정신약물학회지**, 4(2), 116-129.
- 조수철, 신민섭(2006). **소아정신병리의 진단과 평가**. 서울: 학지사.
- 조수철, 이영식(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5.
- 최선남, 최외선(1999). 아동의 우울 정도에 따른 가족 환경 지각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91-100.
- 최영희, 박영애, 박인진, 신민섭(2002).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경향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03-214.
- 한준아(2008). 이혼 가정 아동의 자아지각 및 문제 행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lloy, L. B., Abramson, L. Y., Tashman, N. A., Berrebbi, D. S., Hogan, M. E., Whitehouse, W. G., et al.(2001). Developmental origins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Parenting, cognitive, and inferential feedback styles of the parents of individuals at high and low cognitive risk for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4), 397-423.
- Asarnow, J. R., Calson, G. A., & Guthrie, D.(1987). Coping strategies, self-perception, hopelessness,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 in depressed and suicid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361-366.
- Avenevoli, S., & Merikangas, K. R.(2006). Implications of high-risk family studies for prevention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1, 126-135.
- Bell-Dolan, D. J., Reaven, N. M., & Peterson, L.(1993).

- Depression and social functioning: A multidimensional study of the linkag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306-315.
- Buehler, C., & Gerard, J.(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78-92.
- Burbach, D. J., & Borduin, C. M.(1986). Parent-child relations and the etiology of depression: A review of method and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Review*, 6, 133-153.
- Cohen, F., & Wills, T. A.(1983).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ummings, E. M., & Cummings, J. S.(1988). A process-oriental approach to children's coping with adults' angry behavior. *Developmental Review*, 3, 296-321.
- Cummings, E. M., Davies, P. T., & Simpson, K. S.(1994). Marital conflict, gender, and children's appraisals and coping efficacy as media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41-149.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 Evans, E. G.(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Garber, J.(2005). Depression and the family. In J. L. Hudson & R. M. Rapee(Eds.), *Psychopathology and the family*. (pp. 225-280). NewYork: Elsevier Ltd.
- Gibb, B. E.(2002). Childhood maltreatment and negative cognitive styles: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223-246.
- Gladstone, T. R. G., & Kaslow, N. J.(1995). Depression and attribu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3, 597-606.
- Goodyer, I. M., & Altham, P. M. E.(1991). Lifetime exit events and recent social and family adversities in anxious and depressed school-age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1, 219-228.
- Grych, J. K., & Fincham, F. D.(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Grych, J. K., Seid, M., & Fincham, F. D.(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the children'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Guidubaldi, J., Perry, J. D., & Nastasi, B. K.(1987). Growing up in a divorced family: Initial and long-term perspective on children's adjustment. In S. Oskamp (ed.), *Annual Review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7(pp.202-237). Beverly-Hills, Calif.: Sage Publications.
-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Denver: University of Denver.
- Hightower, A. D., Work, W., Cowen, E., Lotyczewski, B., Spinell, A., Guare, J., et al.(1986). The teacher-child rating scale: A brief objective measure of elementary children's school problem behaviors and competencies. *School Psychology Review*, 15(3), 339-409.
- Horowitz, J., & Garber, J.(2006). The prevention of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3), 401-415.
- Kaslow, N. J., Brown, R. T., & Mee, L.(1994). Cogni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childhood depress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W. M. Reynolds and H. F. Johnston(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ewYork: Plenum Press.
- Kovacs, M., & Beck, A. T.(1977).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pp. 1-25). In J. G. Schulerbrandt & A. Raskin(eds.). *Depression in childhood: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s*. NewYork: Raven Press.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 P. H. Mussen(Genera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4th ed.). NewYork: Wiley.
- Newman, D. L., Moffitt, T. E., Caspi, A., Magdol, L., Silva, P. A., & Stanton, W. R.(1996). Psychiatric disorder in a birth cohort of young adults: Prevalence, comorbidity, clinical significance, and new case incidence from ages 11 to 21,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552-262.
- Nolen-Hoeksema, S., Girgus, J. S., & Seligman, M. E. P.(1992). Prediction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A 5 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05-422.
- Puig-Antich, J., Lukens, E., Davies, M., Goetz, D., Brennan-Quattroch, J., & Todak, G.(1985). Psychosocial functioning in prepubertal major depressive disord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the depressive episod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500-507.
- Rodgers, K. B., & Rose, H. A.(2002). Risk and resiliency factors among adolescents who experience marital trans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1024-1037.
- Spence, S. H., & Reinecke, M. A.(2003). Cognitive approaches to understanding, preventing, and treating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In A. T. Beck, M. A. Reinecke, & D. A. Clark(Eds.), *Cognitive therapy across the lifespan: evidence and practice*(pp.358-395). Cambridge County Tow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cks-Nelson, R., & Israel, A. C.(2001).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 N. J.: Prentice-Hall. Inc. **아동기행동장애**. 정명숙, 손영숙, 양혜영, 정현희(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0년 원저발간)
- Windle, M.(1992). A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buffering for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522-530.

---

접 수 일 : 2010년 9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0년 10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1월 23일